

“기후변화 대응 통해 역량 보여주자”

새농민 전북도회
한마음 전진대회

부안군에 농산물
꾸러미 250개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한국새농민 전북도회(회장 이기성)는 24일 부안 계화종합복지센터에서 2022년 한국새농민 전북도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광수 부안군의장 등 7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사)한국새농민 전북도회는 행사에서 부안군에 농산물꾸러미 250개(800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우수회원에게 대한 농식품부장관, 전북도지사, 농업중앙회장, 전북농협 본부장 표창장 시상 및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기성 회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삼아 유통구조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대응을 통해 농업을 선도하는 새농민회의 역량을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전북농협과 (사)한국새농민 전북도회(회장 이기성)는 24일 부안 계화종합복지센터에서 '2022년 한국새농민 전북도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스마트관 조성 확대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 농산물 유통 시스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여가겠다”며, “전북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도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새농민회는 농업에서 자립·과학·협동 정신을 실천하는 최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새농민상을 수여하고 이를 선도 농업인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지난 1969년도부터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도내에는 2022년 7월 기준 568쌍(1,136명)의 농업인이

활동하면서 선진 영농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농민 승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부모들의 지식을 이어받고, 미래 농업을 개척해 차세대 대한민국 농업의 주역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천단마을 포도 라이브커머스에서 만나요

유기농 청포도 · 거봉 등 오늘 30% 이상 할인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정읍 시 천단마을에서 재배된 유기농 청포도와 거봉을 25일 오전 11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할인 판매한다.

국내 최초 친환경 과수재배지로 인정받은 전북 정읍시의 천단마을은 1995년부터 농약이나 화학비료 대신 완숙과, 꺾둑, 쌀겨, 조개껍질 가루를 섞어 만든 비료로 유기농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꼼꼼한 품질관리를 통해 재배되는 참란마을 유기농 포도는 프리미엄 과일로 당도(17~20brix)가 높고 과일

향이 깊고 풍부해 인기가 많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네이버 쇼 핑라이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시중가격보다 30%이상 할인된 가격과 무료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최근 수확기인 농산물 관리에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고, “전북농협은 온라인판매, 직거래 등 판매채널의 다변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준비 박차

농협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군정 목표인 ‘지역경제활성화’와 ‘돈버는 농업’이 제고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는 순창 쌀 10kg(2품목, 동계농협, 서순창농협), 농산물 꾸러미 세트(3종 3만원, 6만원, 9만원), 육광 알밤(2종 - 3kg, 5kg), 버섯세트(포고+노트리), 축산물 세트(돈육3종, 우육 4종, 3만원, 6만원, 9만원), 농산물간식세트(사과잼, 딸기잼, 맛밤)를 준비하였으며, 추가로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을 추진 중이다.

답례품 포장디자인은 순창관광명소(줄길거리와 불거리) 이미지로 확정하고 지역명소, 농축산물 상품 규격, 포장용량 등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책자(전자북)를 9월까지 제작하여 홍보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수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 협력, 지역경제활성화와 돈버는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새마을금고 “직원 괴롭힘 근절할 것”

여직원 갑질 의혹 관련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점심시간마다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측은 앞으로 직원 괴롭힘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점심시간 대가 되면 “밥을 지어라”라는 상사 지시에 밥을 지어야 했으며, 남자·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걸어 집에서 세탁을 해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왜 이렇게 질게 됐냐며 밥 상태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냉장고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간부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시골이니까 내가 이해해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회식과 워크숍 참석을 강요당하거나 참

석하지 않을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지난 19일에는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A씨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건에 대해 고충처리전담부서 및 검사부서 등에서 조사를 착수했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엄중관리 방침을 확립하고 금고 경영진 대상 윤리경영 특별교육, 고충민원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전담조직 강화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벌 사례 등 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재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8월 전북 비제조업
체감경기 하락

8월 전북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24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 BSI(70)는 전월보다 2p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 BSI도 68로 전월(75)에 비해 7p 떨어졌다.

제조업 업황 BSI는 88으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9월 전망은 88로 전월보다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이와 관련 8월 중 전북지역 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 인력난·인건비 상승 등이 주된 이유였다.

/뉴시스

국산 쌀 소비 활성화 앱 나왔다

농협경제지주, 쌀밥 맛집 추천 App ‘밤동여지도’ 출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경제지주에서 국민식생활 개선을 지원해 국산 쌀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쌀밥 맛집 추천 App ‘밤동여지도’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밤동여지도’는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기획한 앱으로, 각 지역의 농협(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축협) 임직원들이 추천하는 쌀밥 맛집 정보를 제공한다.

‘밤동여지도’는 맛집 등록 시 국내산 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을 실시

하고 있으며 메뉴 정보, 매장 내 편의시설, 주차 가능 공간 외·내판 사진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또 사용자가 직접 음식 맛, 서비스, 분위기, 가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하기’와 ‘리뷰’ 기능을 추가해 사용성을 높였다.

위치기반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에 따라 맞춤형 맛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탑재해 정보 교류와 소통 편의성도 높였다. ‘밤동여지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앱 스토어(iO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쌀의 날(8.18)을 기념하여 출시된 ‘밤동여지도’ 앱을 통해 쌀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과 실질적인 쌀 소비 촉진을 기대한다”면서, “쌀 산업 기반유지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